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60 (2023. 09. 18. 월)

8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 버리고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1년 같았습니다. 아가페 아이들 중 3/4이 아팠고 스텝들도 돌아가면서 아프느라 하루하루를 겨우 지탱하는 1달이었습니다. 방국은 이미 뎅기열로 8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우리 아이들과 그 주변도 심심찮게 뎅기열로 고생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인도 2명이나 사망했는데 총 한인 수에 비하면 엄청난 치사율입니다. 아가페는 이제 한 풀 꺾인 상황이어서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난리통에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방국은 아직도 뎅기열이 사그라들지 않고 거기에 타이푸스와 독감까지 같이 돌아 국립 병원인데도 마치 전쟁통 야전 병원같이 한 홀에 백 명이상의 침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과 몇 주 전을 돌아보며 감사기도가 나오지만 이전 상황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프고,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언제 그랬냐 싶지만 그 때는 더럭 겁이 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아가페 현 상황

1. 새로운 아이들 세 명이 왔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처음 오면 하루 종일 우는데 이 아이들은 바로 적응해서 너무 좋아하네요... 이로써 한 반에 8명이 되어 또다시 반을 증설해야 하고, 교사를 뽑아야 하고, 방을 하나 더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늘 말하는 것은 찾아오는 모든 아이들을 다 받아주고 싶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장소만 허락한다면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주고 싶은데, 너무 많은 조건들이 연결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재 학교는 31명, 널서리는 11명의 아이들과 성인 홈 2명이 있습니다.

2. 홈 관리하는 부부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우리 아이들을 홈에서 돌보아 주던 부부 중 홈마더를 담당했던 찜빠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 하에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의 특성 상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데 니루만 있게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부부를 함께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라자와 포예즈를 돌보았던 조핀이 돌보기로 하고 여아들은 꼴리 선생님이 돌보기로 했습니다. 이 체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그 정도도 너무 심해서 심각성을 잘 못 느낍니다.

3. 방국에서 한국농사를 지어 공급하시는 사장님이 소뻬를 주셔서 3일을 고아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뻬 10kg을 양념을 넣고 3일
고았습니다.



국물에 루띠라는 난 같은 것을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할 줄은... ㅎㅎ 감사한 일입니다.
루비나, 리따 선생님 반



다들 뼈까지 쪽쪽 빨아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샬로미, 폴리 선생님 반



4. 목공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사진의 씨판과 에호싼은 중도 포기, ㅎㅎ, 파힘,샤뎀,압둘 그리고 조고디시 선생님... ㅎㅎㅎ

수업 장소는 주차장인데 주인집 차가 서있어서 장소는 비좁고, 주인이 차에 튼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일단 그냥 가봅니다. π-π

조고디시 선생님 - 라자와 포에즈를 조핀과 번갈아 돌보시는 분입니다. 원래 목수였거든요...

점심 먹고 1시간 목공 수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뻥뻥합니다. 못박고 망치질하는 것부터 가르쳐 달라 했더니 바로 작업 테이블 만들기부터 시작해 버렸네요. ㅎ

씨판, 에호싼, 압둘, 샤밈, 파힘 5명으로 시작했는데 ㅋ 에호싼과 씨판은 관심 없어 중도 포기...

압둘, 샤밈, 파힘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상판을 만들었던데... ㅋ 기대해 주세요.

5.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아가페 아이들과 함께 꾸민 천지 창조...하늘은 양산으로 대신하고 그릴 수 있는 아이들은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꾸몄어요. 우리가 꾸미고도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 느껴봅니다.

6. 이제 아이들이 그 무섭다는 중2병 시기가 왔습니다.

13살 넘는 아이들이 드디어 중2병이 생겨 싸우고, 나쁜 말도 하고, 반항도 하고...

드뎌 사회적 문제를 저희 아가페에서도 직면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시작한 목공수업인데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ㅎ 이녀석들...

7. 널서리 아이들은 이렇게 지냅니다. ㅋㅋㅋ



우주 최강 말썽쟁이
사벨 - 귀잡고 널서는
모습 ㅋㅋㅋ



스탠딩 프레임에 서서
각종 소근육 운동과
공부들을 하고 있는
하미다,살만,무란...



소근육 발달을 위한 망치질-까오샬

8. 뎡기열과 티푸스, 독감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뎡기열, 타이푸스(장티푸스)와 독감이 처음 증세가 똑같아 구분이 어려워 더 방치가 되곤 합니다.

게다가 한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아직도 이 지구상에 뎡기열로 죽어가는 한인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땅에서 살아 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재해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그냥 그러려니 체념하고... 이정도는 신문에도 안나는... π-π



한 시간 폭우에 무척 높은 보도블럭까지 물이 차고
릭샤의 바퀴 반이 물에 잠기지만 너무도 잦은
일이라 아무도 동요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상황

1. 방국의 밀알 지단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순적하게 지혜롭게 구성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2. 저 역시 많은 일들 가운데 심신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아가페 아이들이 두 팔 벌려 운동할 수 있고 목공 수업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장소가 하락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현재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데 홈과 스쿨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3) 우리 중2병 아이들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순탄하게 지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4)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밀알 방국 지단 이사회 구성이 순탄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 걷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7) 빠열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기도부탁 드립니다. 심장의 구멍이 작아지고 막힐 수 있도록...
- 8) 저를 비롯한 스텝들이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으로다 할렐루야(시 117:2)

방글라 성경은 인자하심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끊임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해 제가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만 미움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제 자신한테 자주 실망을 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그런데 이런 제게 사랑할 자녀가 없는 대신 우리 아이들을 주셨군요.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진실하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